

농협구례교육원 이웃돕기 성금 전달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곡 '당신은 우리입니다' 작곡한 신형원



농협구례교육원(원장 김수공)은 최근 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구례군 시립리 소년소녀장을 비롯해 불우이웃들에게 전달했다. 또 이날 교육원은 광주시 학부모동서회와 시립리 마을이 함께 하는 도농상생교육을 펼쳤다.

<농협구례교육원 제공>

영화 '해운대' 관객 1천만명

'괴물' 이어 다섯번째... '국가대표' 500만 돌파

영화 '해운대'가 23일 1천만번째 관객을 맞는다. 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해운대'는 토요일인 22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22만3천여명의 관객을 더했다. 이로써 개봉 이후 누적 관객은 987만 3천여 명을 기록했다.

일요일에는 보통 토요일보다 10% 정도 적은 관객이 든다는 경향을 고려한다 해도 이날 1천만 관객을 돌파하는 것은 거의 확실한 전망이다.

CJ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번이 없는 한 오늘 1천만을 돌파한다"면서 "정확한 집계는 내일 오전에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해운대'는 2006년 '괴물'에 이어 다섯 번째로 1천만 관객 영화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개봉 33일 만의 일이다.

한편 '해운대' 쓰나미에 밀려나는 듯하던 '국가대표'가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며 5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제작사인 KM컬쳐에 따르면 '국가대표'는 개봉 25일만에 지난 22일 누적 관객 508만 8천695명을 기록했다.

올해 개봉 영화 중 500만을 돌파한 것은 '트랜스포머 : 꽤자의 역습'과 '해운대'에 이어 세 번째다.

특히 대부분 영화가 개봉 3주차에 주말 관객이 많이 줄어드는 데 반해 '국가대표'는 가장 많은 관객 수를 기록하는 이례적인 흥행 추이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농구스타 박찬숙 팔 서효명 방송 MC 맡아

왕년의 농구스타 박찬숙의 딸인 서효명(23)이 EBS TV 어린이 프로그램 '생방송 톡! 보니하니'의 진행자로 발탁됐다.

22일 EBS에 따르면 서효명은 신인 훈성그룹 계리골드스미스의 스미스(본명 정승현)와 함께 24일 방송부터 새로운 '하니'와 '보니'로 나선다.

SK텔레콤 '치어리더' CF로 유명세를 탄 서효명은 "어린이 친구들에게 웃음과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친언니 같은 '하니'가 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방송인 김구라의 아들 김동현은 이 프로그램의 새 코너 '동현이의 기막힌 밭아쓰기'를 진행한다. 김동현이 외국인 초등학생 4명과 어울려 한글을 공부하면서 한국문화를 알려주는 코너다.

이밖에 새롭게 단장한 '생방송 톡! 톡! 보니하니'는 '요절복통 체육부', '댄스 배틀 아이돌 리그', '블링블링 골드 드라마' 등의 코너도 선보인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동창·동문회

▲광주상고 12회 동창회(회장 이재술) 8월 하계모임=30일(일) 낮 12시30분 중심사 버스종점 전북식당. 062-227-1449, 011-9440-0300.

종친회

▲동래정씨 광주전남종친회(회장 정한영) 이사회=25일(화) 오전 11시 무등고시학원. 011-9615-8567.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풍수지리 시민무료 공개강좌=

"이틀밤을 새며 국민의 슬픔 담았습니다"

"당신은 민주주의입니다~몇 번이나 죽음의 마루터 몇 번이나 그 마루터 넘어... 당신은 우리들의 자유입니다. 우리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곡 중 일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모곡 '당신은 우리입니다'가 영결식을 하루 앞둔 지난 22일 공개됐다.

고은 시인이 쓴 같은 제목의 추모현시에 '개똥벌레'를 부른 신형원 경희대 포스트모던 음악과 교수는 곡을 입혀 노래했다.

이 추모곡은 23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영결식 추모공연에서 신 교수가 직접 불렀다.

신 교수는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들었지만 실감나지 않았다. 지난 19일 임시 빈소에 가서야 따뜻하고 인간미 넘치는 그 분을 영영 봄보게 됐구나라는 게 느껴졌다. 아버지를 잊은 느낌이다"고 한숨을 내쉬었

다.

김 전 대통령 추모곡은 유족 측이 지난 20일 김 전 대통령이 생전 즐겨 부르던 '개똥벌레'의 가수 신 교수에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김 전 대통령은 '저 산맥은 말도 없이 오천년을 살았네'로 시작하는 신 교수의 노래 '녀'도 즐겨 부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대통령과 신 교수의 인연은 지난 1992년 3·24 총선을 앞두고 '고마 민주당'과의 통합에 성공할 무렵 전국 순회 유세에 신 교수를 직접 초청하면서 이어졌다. 당시 신 교수의 초청은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문화 공연을 함께 진행하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프로그램이었다.

아직 서슬퍼런 군사정권의 임재가 남아있던 시절, 야당 정치인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인 신 교수를 김 전 대통령은 두고두고 고마워 했다.

신 교수는 "이심전심이랄까 서로가 무엇으로 다가오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다"며 "김 전 대통령은 기회가 될 때마다 '내가 야당 시절에 함께했던 사법'이라고 소개해 주시곤 했다"고 말했다.

이때의 인연이 이어져 김 전 대통령은 1997년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신 교수와 자주 만나 식사를 함께했다. 김 전 대통령이 설립한 야태평화재단 및 퇴임 후 신 교수는 6·15 공동선언 기념공연 음악감독을 맡으며 인연을 이어왔다.

유족 측으로부터 추모곡 작곡을 요청받은 뒤 신 교수는 이를 밤을 새 작업을 마쳤다.

신 교수는 "국민들 모두 슬퍼하지 않나. 그 슬픔이 곳에도 그대로 물어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호남대·광주시, 남도음식 세계화 나섰다

'향토음식 전문가 양성과정' 개설

호남대학교와 광주시가 남도음식 세계화를 위해 밟았고 나섰다.

호남대와 광주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식 세계화 추진전략'에 발맞춰 광주 고유 음식을 표준화하고 상품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향토음식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호남대는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의 한식세계화 사업 조리 교육기관공모와 관련,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향토음식 전문가 양성 교육' 기관으로 선

정된 바 있다.

호남대학교에 개설된 '향토음식 전문가 양성' 과정은 광주의 전통 향토음식을 표준화하고 반가, 궁중, 전통, 향토 음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며 한식 푸드 스타일링을 통해 향토음식을 상품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대상자는 식품·조리 전공자와 조리 분야 경력자로, 20명을 선발하며 교육생에게는 교육비 300만원이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교육기간은 오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17주간이며,

일본 벤치마킹과 현장연수 기회도 제공된다.

교육과정 이수자에게는 광주시장 인증서와 호남대학교 종장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게 되며, 광주시에서 개최되는 국제식품박람회 등에 참가할 기회도 제공된다.

신청서는 호남대 홈페이지(www.honam.ac.kr)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오는 25일까지 호남대 조리과학과(학과장 김진모)에 제출하면 된다.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호남대 조리과학과(062-940-5647)로 문의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저탄소 녹색성장·기후변화 협력

광주시-에너지공단 협약

광주시와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은 지난 21일 시청 3층 비즈니스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저탄소 녹색성

장 및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절약사업 ▲CDM(정정개발체계) 등 기후변화대응 제반사업 ▲2011 광주세계환경엑스포, 2014 세계수도권 대회,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개최 지원 등을 위해 상호노력을 하기로 했다.

マイ클 잭슨 안장식 내달 3일로 연기

지난 6월 세상을 떠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안장식이 내달 3일로 연기됐다.

잭슨의 유족 대변인인 켄 선샤인은 21일 성명에서 잭슨의 생일에 맞춰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안장식이 내달 3일 오후 7시에 거행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연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잭슨이 안장되는 곳은 로스앤젤레스 북쪽 클랜데일에 있는 포리스트 루션 공원묘지의 그레이트 모설리엄이며 장식자는 그의 유족과 친지 등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연합뉴스

"호남 고객에 최첨단 유무선 복합서비스 제공"

김성범 KT호남네트워크운용단장 취임

김성범(53) KT호남네트워크운용 단장이 최근 취임했다.

광주 출신의 신임 김 단장은 광주 제일고와 한양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듀크대 E-MBA(최고경영자)과정 등을 수료한 후 KT 기술지원본부 본부장 등을 거쳤다.

김 단장은 "고향에서 근무하게 돼

매우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세계속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호남지역 고객들께 최첨단 유무선 복합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 기반의 네트워크 시스템 최적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관리전문화, 안정화, 시설투자 효율화로 최상의 명품 네트워크로 거듭나겠다"며 "언제, 어디서나 유·무선 응용서비스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의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전세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 기반의 네트워크 시스템 최적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필상기자 kps@kwangju.co.kr

또 김 단장은 "호남지역의 통신망

모집, 5일까지 방문접수 서구 양3동 385-20 광주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062-369-0074~75.

▲전통문화 보전 연구회=한문·예절·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회원 모집. 북구 종흥 3동 동사무소 맞은편. 062-268-5588, 011-227-4000.

▲김족간씨 별세 김형중·창중·형순씨 모친상=발인 24일(월) 학동 금호장례식장 401호. 062-227-4000.

▲김병수씨 별세 김근만·덕원·근율·복동·옹용·명금씨 부친상=발인 24일(월) 학동 금호장례식장 101호. 062-227-4000.

▲박수인씨 별세 박재우씨 모친상=발인 24일(월) 주월동 나라장례식장 401호. 062-670-4444.

▲박달례씨 별세 서용석·정애씨 모친상=발인 24일(월) 주월동 나라장례식장 201호. 062-670-4444.

448.

▲김평안씨 별세 조성전·중천·미성·미야씨 모친상=발인 24일(월) 학동 금호장례식장 402호. 062-227-4000.

▲김용환씨 별세 관중(서울시교육청·과장)·정중(관세청)·문갑(한국종합엔지니어)·연숙·황숙·광자·진옥씨 부친상=발인 24일(월) 학동 금호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김영삼씨 별세 광설·수현·현씨 부친상=발인 24일(월) 주월동 나라장례식장 401호. 062-670-4444.

▲김정식씨 별세 영·영수·영일·길례·길순·이순씨 부친상=발인 24일(화)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5155.

▲임정순씨 별세 백남길·남주·영이·분이씨 모친상=발인 25일(화)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5155.

▲임정순씨 별세 백남길·남주·영이·분이씨 모친상=발인 25일(화)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5155.

▲임정순씨 별세 백남길·남주·영이·분이씨 모친상=발인 25일(화)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5155.